



아빠 트럼프 할아버지가 바비인형 가격 올린거야?

Cover Story 장난감 가격까지 흔드는 트럼프

“바비 인형 가격이 또 오른다고?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사둬야 하나.”

어릴 적 바비 인형을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른 적이 있나요? 바비 인형은 미국 마텔(Mattel)사의 대표 상품으로 1959년 출시된 이래 150개국에서 10억개 이상 판매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텔사가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비 인형은 미국 장난감 시장을 대표하는 제품이지만 사실 모든 바비 인형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텔 사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제품의 약 4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인건비나 원자재 비용이 싸기 때문이죠.

바비 인형 가격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과 관계 있습니다. 자국(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부도 쌓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많아지면 미국 내 생산 비용이 줄어들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제품 가격을 높이고 대(對)중국 수입 규모를 줄이고자 한 것이죠.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들어가는 바비 인형에 10% 추가 관세가 붙게 되었습니다. 인형을 만드는 기업(마텔)은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20달러(약 2만9000원)에 판매되던 바비 인형 가격이 앞으로 31.2달러(약 4만5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50% 이상 오르는 셈이죠.

바비 인형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건 단순히 “장난감이 비싸졌네?”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작은 변화 속에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관세 정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어요.

김혜순 기자



국가공인 **매경 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일 더하고 싶은데 52시간 넘으면 안된다고요?



쉽게 이해하는
시사뉴스



반도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요즘 경제든 정치·사회 분야든 참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미국에선 자국 이익을 더 챙기겠다며 세계 질서를 뒤집는데,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중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와중에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의 발전은 너무나 빨라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각국 정부와 기업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논란 하나가 뜨거워요. 바로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논란이에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뭔가 반도체 관련법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왜 논란인 걸까요? 또 주 52시간 근로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반도체특별법이 뭐야?

최근 국제적으로 반도체 업계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겨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에요.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로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에 정책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이 분야 투자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지원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출이나 세금 혜택 외에 정부가 지원금을 기업에 직접 주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돈을 막 퍼주면 특정 분야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니까요.

그런데 최근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고, 파격적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만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각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대응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근무 시간은 무슨 상관이야?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역시 반도체 분야 경쟁국인 미국·일본·대만의 규제를 고려한 내용이에요. 이들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들은 근무 시간에 큰 제약이 없거든요. 미국은 1938년 도입된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가 있어서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연봉 1억5000만원 이상)는 근로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본도 2018년에 도입된 ‘고도 프로페셔널’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특정 직종 전문직에 한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 시간 연장에 제한이 없어요. 대만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무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고 해요.

반도체 업계는 다른 경쟁국처럼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근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이렇게 기술 경쟁이 심한 때에 연구 인력의 근무 시간이 짧으면 결국 뒤처진다’는 게 업계 논리예요.

쟁점은 주 52시간 예외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라는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쟁점이 된 건 후자예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서 설명했던 연장 근로의 필요성을 근거로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고려해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에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온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래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2년 1904시간으로 줄어서 감소 추세이지만, 다수 주요국이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9시간보다는 185시간이나 길어요.

매일경제 DIG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대환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 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왜 한국이 긴장할까



게티이미지뱅크

여러분, 혹시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해외 사이트에서 사면 더 싸다는데”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결제했는데, 최종 결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비싸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세(關稅)’입니다.

관세란 무엇일까?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바비 인형 같은 해외 브랜드 상품을 사면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관세를 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해외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바비 인형이 많이 들어오면, 국내 인형 브랜드인 ‘콩순이’나 ‘캐치! 티니핑’ 같은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바비 인형에 관세를 매겨 가격을 올리면, 국내 제품과 비슷한 가격대가 되어 콩순이나 티니핑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역 전쟁?

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국가 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가치를 내걸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면, 중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국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어, 양국 간 무역전쟁이 벌어집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적용될 경우 상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 얘기인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세는 우리 일상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을 예로 들면, 아이폰은 미국 기업 애플이 중국에서 조립·생산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아이폰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아이폰을 사게 됩니다. 즉, 관세는 스마트폰, 신발, 옷, 장난감 등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수입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경제는 관세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뜻이지요.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다양한 국가에 보편 관세(넓은 범위의 상품에 일괄적으로 매기는 관세)를 적용하거나 상호 관세(상대국 대응을 감안해 매기는 관세)를 강화한다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관세 정책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이나 일부 남미 국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곧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궁석 인턴기자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쓰여
국가간 무역전쟁 번지기도

‘MAGA’ 앞세운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중 생산 아이폰 가격 올려
전세계 소비자에 큰 부담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도
미국 관세 타깃 될 가능성



미국 살려면 71억원이나 있어야 되나요?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골드카드’.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영주권 세일즈 ‘골드카드’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주권을 500만달러(약 71억원)에 판매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해당 정책은 약 2주 후부터 시행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 일 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80만~105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미국의 투자이민 제도(EB-5)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 및 추방하고 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미국의 영주권 판매 정책이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이민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유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소비를 촉진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2조 액팍, 현대로템 해외 수주

2월 26일 현대로템은 모로코로부터 2조원이 넘는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단일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2층 전동차를 도입해 모로코의 대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총 2조2027억원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원래부터 고속전철, K2 흑표전차 등 철도 및 방산 분야에서 우수함을 보였고, 2023년부터 꾸준히 해외 수주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대로템뿐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이 최근 해외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정부는 내수 침체 및 경기 불황으로 해외 사업 입찰

▶ NIE 준비하기

1.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2. 해외 사업 수주를 통해 국내에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했는데요. 적극적인 EDCF(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ODA(공적개발원조) 등 해외 사업 입찰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국들을 제치고 당당히 수주에 성공한 것이죠. 특히 이번 사업은 차량의 부품 중 약 90%를 200여 개의 국내 기업에서 공급하기로 해 내수 및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까지 “다 있소” 다이소

2월 25일 가성비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출시됐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 35종입니다. 성분과 함량을 조절해 약국보다 싼 3000원에서 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일부 약사들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전량 반품, 주문 취소 등 보이콧을 해 건기식의 다이소 입점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약사들의 반발로 일양약품은 판매 닷새 만에 다이소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대웅제약, 종근당 건강 또한 철수를 논의 중이라고 2월 28일 전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유통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현 상황에 대해 약국과 제약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토론해 봅시다.

현재는 높은 접근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약사의 진단 없이 건기식을 잘못 복용하는 사례가 생길까 걱정하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현진 연구원



500만달러

미국 영주권
‘골드카드’ 가격

2조2027억원

현대로템 역대 최대
해외 수주 규모

3000~5000원

다이소 출시
건강기능식품 가격



“학교 폭력 막아주죠” vs “인권 침해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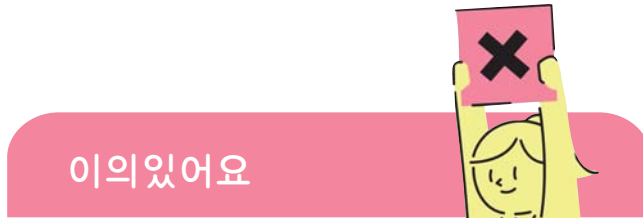
초·중·고 CCTV 설치 의무화 논쟁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김양의 이동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교사의 범행을 막았거나 적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초·중·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시설인 학교 교실이나 복도에는 CCTV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지금이라도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의있어요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보장

교내 CCTV 설치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보장입니다. 최근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괴롭힘, 성추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CCTV는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는 범죄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내 범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될 수 있으며 특히 장애 학생의 경우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CCTV 영상은 객관적인 증거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기록을 통해 사건 발생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학교 관리 효율성 향상

CCTV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직원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점검함으로써 질서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가 부재 중이어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질서 있는 학교생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인해 학생들은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인식하게 돼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행동을 조심할수록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돼 학교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학생·교사 인권 침해 우려

교내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CCTV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적인 순간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심지어 공부할 때도 CCTV는 모든 활동을 녹화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압박감과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 역시 교실 내에서 행동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이미 CCTV 설치가 된 어린이집 교사들은 “감시 아래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 지금도 편하지만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CCTV 확인 요구가 당연하게 이뤄져 아동 학대의 잠재적 가해자가 된 기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 자유로운 소통 방해로 신뢰 저하

CCTV 설치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시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교사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학생들에게 교사와의 소통을 꺼리게 만들고, 개방적인 대화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음성 녹음 없이 교실 안의 영상만 찍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을 뿐인데 보기에 따라 때리는 것처럼 느껴져 분란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사들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게 돼 유대감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김민성 인턴기자



1

CCTV 설치
안전 보장 vs 인권 침해

2

CCTV가 안전사고 대응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3

교내 신뢰저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용돈을 많이 쓴다고 행복할까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Q.

방학을 맞이해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방학엔 사람이 많죠. 입구부터 복적이기는 게 보였어요. 친구들과 자유이용권을 구매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타고 싶은 인기 있는 놀이기구엔 매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줄이 짧은 건 회전목마처럼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몇 개뿐이었어요. 결국 줄 서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놀이기구를 몇 개 못 타고 나왔답니다.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고, 놀이기구 하나 탈 때마다 돈을 내는 게 훨씬 저렴할 뻔했어요. 생각해보니 작년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였어요. 제가 매표소에서 봐도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봄비는 놀이공원에서도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A. 모처럼 놀이공원에 갔는데, 줄이 긴 바람에 놀이기구를 몇 개 못 타고 와서 속상했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사례는 휴양지 여행 상품인데요. 호텔 숙박뿐 아니라 스포츠 액티비티, 스파, 마사지, 바비큐 등등 여러 가지 활동과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여행 상품을 이용한 거예요.

일종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은 거죠. 예전에 이런 여행 상품을 택해서 발리에 간 적이 있는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이용한 활동, 서비스, 숙박료를 각각 따로 계산해 보니 그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랑 함께 간 친구 가족은 모든 활동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지불했습니다. 숙박료도 여행하며 지급했죠. 그런데 모두 똑같은 걸 즐기는 여행을 했지만 제가 친구보다 여행 만족감이 더 높았어요.

미국 듀크대에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강의하는 댄 애리얼리 교수의 연구에서도 신기하게 각각 따로 비용을 지불해서 더 적은 금액을 낸 사람들이 패키지로 모든 비용을 묶어서 더 높은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한 사람들보다 만족감이 낮았어요. 이용한 서비스의 양과 질은 같고, 더 적은 비용을 지불했으면 만족감이 더 커야 하는데 말이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불의 고통’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낼 때 고통을 느낍니다. 저는 여행비를 한 번에 지불했어요. 여행 떠나기 한참 전이죠. 큰돈이 한 번에 나가니까 결제하기 전에 고민하고 카드를 내밀며 두 손이 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행할 땐 이미 지나간 옛일이 되었습니다. 여행 시에는 지불의 고통을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죠. 하지만 친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용하면서 지불의 고통을 매번 느낀 거죠.

저는 발리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지만 친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댄 애리얼리의 관찰에 따르면 이렇게 매번 이용 시마다 결제하는 게 소비를 덜 하도록 절제시키는 효과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만족감의 정도, 행복감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패키지로 미리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 여행을 온전히 즐기며 더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은연중에 매번 소비할 때마다 지불의 고통을 느끼기 싫기에 놀이공원에서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풀옵션의 여행 상품을 고르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놀이공원에 사람이 복적이기는 모습.

ChatGPT 생성

지불의 고통을 제거하면 돈을 보다 더 자유롭게 쓰고 소비를 더 많이 즐기게 돼요. 반대로 지불의 고통을 늘리면 지출에 대해 절제를 하게 돼서 지출이 줄어들지요. ‘행복하려면 미리 돈을 많이 지불하세요’가 결론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학 입학 축하 기념 가족 여행이나 일생에 한 번 가게 되는 신혼여행이라면 지불의 고통을 줄이고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을 마음껏 즐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룻길에 과일주스를 자주 마시고자 주스 가게에 미리 주스 20잔 가격을 지불해 두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미리 20잔어치의 비용을 내두면 주스를 20잔 마실 때까지 공짜라고 느끼며 매일 마시게 될 수 있거든요. 한 잔 마실 때마다 지불해야 하면 한 달에 10잔 마실 걸 이렇게 미리 결제해두면 한 달에 20잔을 마실 수도 있을 거예요.

미용실에 회원권으로 20만원 혹은 30만원을 미리 결제해두면 그 금액에서 매번 갈 때마다 시술 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이렇게 회원권을 끊어서 이용할 때가 있는데, 회원권이 있으면 ‘파마를 할까 말까’하는 고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왕 회원권 있는데, 더 여러 가지 시술을 맘 편히 하게 되더라고요. 회원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이 있는 경우 그 할인으로 인한 혜택과 내가 괜히 더 헤프게 쓰게 되는 단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서울 양정중학교 사회교사·실험경제반 운영



시사용어CHECK

소비와 지불의 커플링

▷ 소비 시점에 비용 지불
<장점>
지불의 고통이 커서 절약

소비와 지불의 디커플링

▷ 소비·지불 시점이 다름
<장점>
소비 만족감이 큼
<단점>
지불의 고통이 작아
쓰쓰이가 커짐

대만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 ① 대만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제조하는 나라, 자신과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접하고 있는 나라, 교육열이 높고 입시 경쟁이 치열한 나라, 같은 민족끼리 전쟁의 비극을 겪었으나 이후 30년간 빠르게 성장해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독재를 경험했으나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정답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포이면서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웃, 북한이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대만과 중국은 많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언어가 같지만 군사적·정치적으로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대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만이라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와도 비슷한 대만과 중국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대만 원주민의 조상들은 기원전 6000~7000년 전부터 대만 섬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물이나 원주민의 신화 외에는 뚜렷한 역사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대만을 발견하고 '포모사(Formosa)'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인들이 이곳에 요새를 건설하고 식민지화하면서 제대로 된 역사 기록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대만으로 오려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을 지나 남중국해의 대만까지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럽인들이 먼 길을 오게 된 이유는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던 네덜란드의 입장에서 대만은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가까워 매력적인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는 1624년 대만 남부에 기지를 세웠으며, 이를 대만의 역사적 기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대만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보다 소수였지만 점차 세력을 확대해 대만 남부를 장악했습니다. 한편 대만 섬 북쪽에는 네덜란드의 경쟁국인 스페인이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이로 인해 대만은 남부의 네덜란드, 북부의 스페인 식민지 그리고 원주민들이 공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인들의 세력을 뒤엎을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정성공(鄭成功)입니다.

정성공은 중국 남부 지역에서 강력한 해상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정지룡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가 몰려가고 청나라가 등장하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주었으나 전쟁으



챗GPT가 생성한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

로 인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 동북부의 여진족(후일 청나라) 세력이 강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망해 가던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정성공이었습니다.

정성공은 군함 100척과 20만명의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막대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세력에 밀려 결국 대만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당시 대만에는 이미 네덜란드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정성공은 전투 끝에 네덜란드를 격파하고 자신의 나라 '동녕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처음 세워진 중국계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동녕왕국은 1683년 청나라에 패배하며 짧은 역사를 마감했고, 이후 대만은 청나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청나라 본토 사람들이 대만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과 광둥성에서는 계속해서 한족들이 대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나라는 한족과 원주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금을 그어 한족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했던 한족들은 점차 원주민의 땅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결국 대만은 한족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역사는 끊임없이 주인공이 바뀌어 왔습니다. 선사시대의 원주민부터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식민지, 최초의 중국계 왕조인 동녕왕국 그리고 청나라의 지배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도 악연이 있는 한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과천외고 영어교사



김창현 선생님의 국제관계 토크아보기



- 네덜란드**

대만을 본격적으로 역사 기록에 등장시킴
- 정성공**

대만에 최초의 중국계 왕조를 세움
- 청나라**

대만을 한족이 주인 지역으로 만들

서울에 있는 시비(詩碑) 도장깨기

서울에 시비(詩碑)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많답니다. 늘 다니던 길가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공원 산책로에, 대학교 교정에, 봄마다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산기슭에 시비가 세워져 있지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경치 좋고 별 잘 드는 곳엔 시비가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운동주기념관 앞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로 시작하는 운동주의 ‘서시’ 시비가 있어요. 참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저항의 민족시인인 운동주를 기리며 너른 캠퍼스에 약동하는 봄기운을 만끽해보죠. 시비 탐방 후엔 맛집이 즐비한 연남동으로 가요. 여러 집이 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감나무집 기사식당’으로 가 돼지불백과 고등어구이백반을 먹을 거예요.

성동구 한양대 교정에는 박목월의 ‘산도화’ 시비가 있어요. 박목월 시인은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18년 동안 재직했는데, 교내 박물관을 비롯해 캠퍼스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비 앞에 서서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마음을 씻었으면 행당시장으로 가볼까요. 돼지고기는 ‘땅코 참숯구이’, 소고기는 ‘소나무집’이 끝내 줍니다. 땅코에서는 목살을, 소나무집에서는 마늘양념 갈빗살을 먹어야 해요.

관악구 남현동 ‘예술인마을’에는 서정주 시인이 30년간 살았던 집 ‘봉산산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국화 옆에서’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친일 행적 때문인지 방문객이 드물어 한적한 것이 잠깐 앉아 있기 좋죠. 사당역 4번 출구로 가는 길 언덕배기에 있는 ‘명돼지갈비’는 개인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숯불 돼지갈비 맛집이에요.

종로구 계동의 중앙고에는 이 학교 출신인 기형도의 ‘빈 집’ 시비가 있어요.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를 읽었으면 삼청동으로 가야 해요. ‘삼청동수제비’에서 향아리수제비와 감자전을 먹고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 단팔죽을 먹자고요.

북촌한옥마을과 정독도서관 일대를 걸으며 배를 꺼트린 후 ‘천진포자’ 만두나 ‘경춘자의 라면땡기는날’ 매운 라면까지 먹으면 성공적이죠.

기형도 시인이 유년기를 보낸 경기 광명시에도 광명 실내체육관 야외공원에 ‘어느 푸른 저녁’ 시비가 세워져 있어요. 해가 길어진 요즘 어느 푸른 저녁에 시비 견학을 한 후 ‘정인면옥 평양냉면’에 가 평냉과 녹두전을 먹어요. 라스트오더는 오후 8시 30분이에요.

이쯤 되면 시비 탐방보다 먹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냉면 하니까 부천역의 ‘오박사냉면’ 생각이 나요. 간판은 냉면집인데 돼지숯불구이로 유명하죠. 참, 부천 중앙공원에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인 정지용의 ‘고향’ 시비가 있어요. 정지용의 고향인 옥천에는 정지용문학관이 있고, 곳곳에 지용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옥천 ‘선광집’의 어탕국수와 도리뱅뱅이는 지용의 시 못지않게 아름답지요.

멀리 가볼까요? 전남 강진 김영랑 생가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비가 있어요. 간 김에 ‘설성식당’ 한정식을 꼭 먹어봅시다. 경남 통영 충렬사 앞에는 백석이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까인’ 후 낫술 먹고 울면서 쓴 ‘통영 2’ 시비가 세워져 있어요. 바로 옆 ‘충렬도너츠’에서 애플타이저로 도넛 몇 개 집어먹고 서호시장 ‘만성복집’에 가 즐복국을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여행정보

운동주 ‘서시’ 시비

운동주 시인의 ‘서시’ 시비를 보려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가야합니다. 시비가 있는 운동주기념관은 연세대 중앙 부근에 위치합니다. 신촌역에서는 20분 정도 거리로, 활기찬 대학로의 기운을 받으며 걸을 수 있는 산책 코스이기도 합니다.



충북 옥천 정지용 문학관 앞의 ‘향수’ 조형물

반드시 먹어야 해요.

시비는 주로 산에 많아요. 도봉구 북한산 생태탐방로에 김수영의 ‘풀’ 시비가 있습니다. 정릉대표소 앞 ‘시골집연탄석쇠구이’는 북한산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닭백숙과 돼지석쇠구이를 먹을 수 있는 숨은 ‘찐맛집’이죠. 한편 4월 중순 남산 소월길에는 꽃송이가 주먹만 한 왕벚나무의 진분홍이 황홀해요.

남산도서관에서 김소월의 ‘산유화’ 시비를 구경하고 그 유명한 ‘남산돈까스’를 먹기로 해요. 역시 남산 기슭인 동국대 중문에는 신경림의 ‘목계장터’ 시비가 있어요. 시비와 눈 맞추고 총무로 ‘필동면옥’의 냉면을 먹어야 합니다.

정작 목계장터는 시인의 고향인 충북 충주에 있어요. 남한강 목계교 건너 옛 목계나루터에 ‘목계장터’ 시비가 있는데 “민물 새우 끓여 넘는 토방 뒷마루”라는 시구 그대로 민물 새우를 넣고 끓인 쏘가리 매운탕과 참마자조림이 압권인 ‘강변횃집’에 안 가고는 못 배겨요.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도 한용운 시비와 더불어 신경림의 ‘파장’ 시비가 있어요. 황태덕장으로 유명한 인제 용대리에서도 손꼽는 황태요리 맛집은 ‘황태령’이에요. 황태해장국과 황태구이를 먹으면서, ‘파장’의 첫 구절 “뫓난 놚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를 읊으며 내 앞의 정말 뫓난 친구와 서로 마주 볼 때 가슴이 웅장해져요. 긴 겨울 지나고 마침내 새봄, 하루 이틀쯤 시간을 내 시비 탐방을 핑계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어떨까요?

허구로 만들어진 ‘야구의 성지’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수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스즈키 이치로.

연합뉴스



올어바웃 스포츠

21세기 초 메이저리그(MLB)에 돌풍을 일으켰던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가 최근 아시아인 최초로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신인왕과 리그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쥔 데다 역대 최다 안타(미·일 합산)를 기록한 그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등장할 것이 확실한 한국인 헌액자를 꿈꾸며 명예의 전당은 무엇인지, 이를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는지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오류와 신화로 반죽된 쿠퍼스타운의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은 미국 뉴욕주 쿠퍼스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 2000명도 되지 않는 이곳은 야구팬들에게 ‘야구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립의 뿌리는 의외로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907년, 스포딩 위원회는 야구의 기원을 찾는다라는 명목으로 ‘애브너 더블데이가 1839년 쿠퍼스타운에서 야구를 발명했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없지만 ‘미국만의 전통’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에 그런 사소한(?) 오류는 뒤로 밀렸습니다.

결국 ‘더블데이설(說)’을 바탕으로 야구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된 1939년, 쿠퍼스타운에 명예의 전당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타이 코브, 베이브 루스 등 ‘최초의 5인’이 헌액되었습니다.

‘0.7%’ 바늘구멍보다 좁은 ‘성지’에 입성하려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MLB에서 활약한 선수가 은퇴 후 5년이 지나야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회원들은 매년 개별 후보자들이 쿠퍼스타운에 입성할 자격을 갖췄는지 투표를 하고 75% 이상 득표하면 입성하게 됩니다. 득표율이 5% 이하하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고, 이상이면 다음해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게 되지요. 후보자들은 최

대 10년간 이런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간 75%의 벽을 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수질 관리’가 엄격하다 보니 명예의 전당 입성은 바늘구멍과 같습니다. 올해 기준 그동안 MLB를 밟았던 선수 중 단 0.7%만이 입성할 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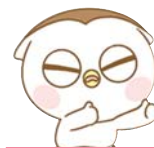
명예의 전당은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만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1939년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1루수 루 게릭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일명 ‘루게릭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은퇴식은 1939년 7월 4일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남겼습니다. 게릭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BBWAA는 그해 12월 5년의 유예기간 없이 그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바뀌는 문턱...韓 헌액자 볼 수 있을까

매년 열리는 명예의 전당 투표는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모습이었던 투표 경향성이 변화하며 오히려 문호가 너무 넓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스즈키와 함께 올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CC 사바시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첫 후보자가 된 올해 8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5번째 ‘첫 턴 입성에 성공한 좌완투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샌디 쿠팍스, 스티브 칼턴, 톰 글래빈, 랜디 존슨이죠. 사바시아가 위대한 선수라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앞의 네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간간했던 과거 ‘올드보이’ 유권자들이 은퇴한 뒤 젊은 야구 기자들에게 투표권이 생겼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투표와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이런 논쟁조차 명예의 전당이 가진 독특한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쓰일 흥미로운 새 역사와 논란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류영욱 기자



스포츠용어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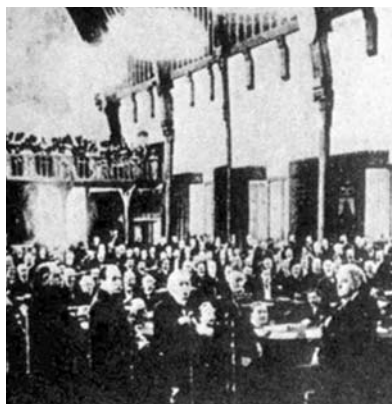
명예의 전당
최소 10년 이상 MLB에서 활약한 선수가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미야구기자협회 회원들은 매년 개별 후보자들이 쿠퍼스타운에 입성할 자격을 갖췄는지 투표를 하고 75% 이상 득표하면 입성합니다. 헌액식은 다음해 7월 말 뉴욕주 쿠퍼스타운에서 개최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일본의 만행을 꾸짖다

“일본인이 사용한 방법과 내용을 각국 대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인은 그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으로 위협하고 대한제국의 권리와 법률을 침해하였습니다. ...일본인은 황제 폐하의 재가 없이 을사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한제국과 우방국의 외교관계 단절은 결단코 우리 대한제국의 뜻이 아니라 일본 때문입니다.”
(각국 대표에게 전달한 외교문서의 일부)
조선인 3명이 대한제국의 지구 반대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큰 목소리로 호소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 대표들을 만나며 절박한 목소리로 대한제국의 위급함을 알렸다. 그들은 어떻게 먼 유럽까지 오게 되었을까.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1907년 헤이그에서의 만국평화회의.



헤이그 밀사 소식을 전한 현지 신문(만국평화회보).

고종 황제는 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나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곧 침략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905년 11월 초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만나 보호조약을 내밀 동의를 강압하였고, 다음날 외부대신(지금의 외교부 장관)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습니다. 11월 17일 어전 회의가 개최된 경운궁(덕수궁) 수옥헌(지금의 중명전)은 일본군으로 포위되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에워싼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고종 황제의 허락이 끝내 떨어지지 않자, 일본은 외부대신의 도장을 탈취하여 조약문에 날인하였습니다. 끝까지 고종 황제의 인준도 받지 못한, 국새의 날인도 없는 불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을사늑약에 분노한 고종 황제는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했던 미국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고종 황제는 유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비밀 특사를 보내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이그 밀사 3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헤이그 밀사의 대표는 이상설입니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의정부 참찬 벼슬에 있던 이상설은 조약의 파기와 을사 5적의 처단을 상소하고, 종로 거리에서 조약 파기에 대한 연설을 하다 분노하여 머리를 땅에 부딪쳐 자결을 시도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준은 대한제국의 검사 출신입니다. 이준은 을사 5적을 처단하려다 체포된 나철, 기산도 등을 석방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상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그만두게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종 황제의 명으로 감형을 받았던 이준은 당시 대한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사의 마지막 한 명이었던 이위종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범진을 따라 여러 나라를 다니며 외교 실무

를 익혔고 7개 외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중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가 매우 유창했다고 합니다. 헤이그에서 이위종은 뛰어난 외국어 실력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연설을 담당하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와의 인터뷰가 현지 만국평화회의의보에 보도되었고, 각국 기자들의 초청을 받아 국제협회에서 유창한 프랑스로 ‘코리아의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주제로 일본의 침략상을 규탄했습니다.

헤이그 밀사는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헤이그에 파견된 대한제국의 특사 이상설, 이준, 이위종은 쉬지 않고 각국 외교관, 언론인 등을 만나 대한제국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 열강들은 대한제국의 상황에 침묵하였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은 세계 도처에서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리고 군비 경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필리핀과 쿠바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영국이 인도에 이어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세력확장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망신을 당한 일본은 권력재판을 열어 이상설에게 사형, 이위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켰습니다.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의도된 무관심 속에 분노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이준은 헤이그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이상설과 이위종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전념합니다. 당시 연해주 지역의 러시아경찰 보고서에 조선인들 중에서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이위종과 그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연해주의 독립운동단체 권업회에서 활동하던 이위종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로 이동합니다. 그 뒤 1920년대 이후 이위종의 활동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시사용어CHECK

을사늑약

을사년(1905년)에 강제로 맺어진 조약. ‘굴레 락(勒)’을 쓰는 늑약(勒約)은 강제로 체결된 부당한 조약을 의미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국 윌리엄 태프트 장관과 일본 가쓰라 다로 총리가 맺은 비밀 협정.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 NASA는 막을 수 있을까



챗GPT가 생성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상상도'.

최근 눈길을 끌었던 과학 뉴스 중 하나는 바로 '소행성 충돌'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진이 지름 500m에 달하는 소행성 '베누'가 지구에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했는데요. 이 결과와 함께 소행성 충돌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현재 어떤 단계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2년 지구 충돌 확률 0.037%

직경 500m의 소행성 베누는 2182년,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0.037%라고 합니다. 100년 뒤의 일인 만큼 우리 세대와는 상관없지만, 후손들은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할 것 같네요. 0.037%는 2700분의 1로 로또 당첨 확률보다는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하버드 IBS 연구진은 베누가 지구와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베누가 지구와 충돌하면 먼저 엄청난 먼지가 지구를 뒤덮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1억~4억t인데요. 성층권에 이 먼지가 도달하게 되면 태양 빛이 지표로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결국 지구의 온도는 4도가량 떨어지게 되고 강수량 역시 평소보다 1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육지의 가뭄은 심해지고요. 대기 내 먼지가 태양광을 반사하는 '충돌 겨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성층권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로써 오존층 파괴가 촉진되고 전 지구의 평균 오존층 농도는 32%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지러워진 환경에 육상 식물의 광합성 생산량은 36% 감소하고 해양 생물의 생산성 또한 25% 감소하게 됩니다.

남극해와 동태평양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철'이 부족해 규조류와 같은 해양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충돌하면 대기 중에 퍼진 먼지가 해양으로 침전되면서 철분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규조류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규조류 성장이 급증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대량 폐사하게 되고 유기물이 바닷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를 분해하기 위해 미생물은 산소를 과다 소비하게 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는 여럿 있습니다. 6600만년 전 공룡의 멸종을 이끈 소행성 충돌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지름이 약 9km에 달하는 엄청난 소행성이 유카탄반도에 떨어졌는데, 연구에 따르면 공룡을 포함한 지구 생물의 75%가 멸종합니다. 소행성 충돌로 햇빛이 먼지와 에어로졸에 차단되는 충격 겨울이 발생했고 지구의 온도는 최대 11도가 떨어집니다. 생태계는 파괴됐고 특히 광합성에 의존하는 생물들이 대거 멸종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할 과학기술은

1998년에 개봉한 SF영화 '아마겟돈'에서는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을 폭발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행성에 착륙한 뒤 땅을 파고 핵폭탄을 설치해 소행성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NASA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냅니다. '다트(DART)'라고 불리는 소행성 방향 전환 실험이예요. 소형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입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26일, NASA는 DART 우주선을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디모르포스는 디디모스라는 더 큰 소행성을 1189m 거리에서 11시간55분을 주기로 공전하는 소행성으로 너비는 170m입니다. 작은 소행성이죠. 충돌 이후 DART의 공전 주기가 변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돼요.

충돌이 있고 난 뒤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는 11시간55분에서 11시간23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레이저를 쏘거나 혹은 우주선을 소행성 옆에 나란히 움직이도록 해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핵폭탄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새디아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지난해 9월 핵폭탄이 소행성 근처에서 폭발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방사선 펄스(고온·고압의 환경에서 발생)가 소행성의 표면을 기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기화된 물질이 한쪽으로 분출되면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실험은 아니지만 진공 환경에 실리카, 석영 소재의 모형 소행성을 만들고 고온의 아르곤 플라즈마를 이용해 X선 펄스를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1Mt 규모(TNT 100만t, 히로시마 원폭은 0.015Mt)의 핵폭발이 발생하면 너비가 4km 정도 되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원호섭 기자



교과서 밖 과학이야기



- 1 소행성 베누 충돌 우려 확산에 NASA 방안 찾기 나서
- 2 영화 '아마겟돈'에 착안하여 다트(DART) 실험
- 3 20~30년 이후에는 인류를 살릴 기술 찾을 수도

주식으로 용돈 불리는 치트키는



허서윤 기자의
재테크 첫걸음



게티이미지뱅크

매경중학교 2학년 '김실적' 학생. '실적' 학생은 일요일마다 집에서 키우는 댕댕이와 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댕댕이 이름은 '주가'. 댕댕이 '주가'는 '실적' 학생의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하고 뒤로 달려가기도 하면서 산책을 즐깁니다. 아이와 강아지는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가의 '베프'를 찾아라

기업 주식의 가치는 실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회사는 자본투자를 받은 증서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 보유자는 회사 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 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배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기간에 주가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에 산책 나온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줄을 맨 강아지가 주인 앞뒤로 뛰어다니지만 결국 목적지인 집으로 함께 들어가듯이 주가도 초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에 걸맞은 수준으로 수렴되기 마련입니다. 주가에 수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실적만큼 주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없습니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반기, 그리고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보통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기 전에 증권사들이 주요 기업의 실적 예상치를 먼저 발표합니다.

기업 주가는 증권사들이 내놓은 실적 전망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실적치보다 기업의 실제 실적이 월등하게 좋은 경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이 발표됐다 하여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실제 실적이 예측치에 아주 크게 못 미치는 '실적 충격(어닝 쇼크)'이 강타하면 주가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숲을 볼까, 나무를 볼까

기업 주가가 그 회사 실적에 영향을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전적으로 실적에 따라 주가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리 실적 전망이 좋아도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개별 주식도 급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 분석을 할 때는 그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업황이나 경제 전체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분석 방법을 구분할 때도 증시 상황을 먼저 살펴 피느냐 아니면 개별 종목 분석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톱다운(Top-Down)' 방식과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나눕니다.

① **톱다운 투자 전략**: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서 지금이 주식에 투자할 시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 한 후 경기 순환 주기에 맞는 유망 업종을 확인하고 이 중에서 주도주를 골라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톱다운 전략에서는 주로 증시가 상승장일 경우에 주식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와 성장주 위주로 종목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이때 대세 상승장을 주도하는 업종의 이름을 따서 '차·화·정(자동차·석유화학·정유)' '전·차(전자·자동차)' 등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② **보텀업 투자 전략**: 경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야 하는데 경제지식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가 경기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톱다운 방식의 투자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보텀업 방식은 톱다운과 정반대로 성장 여력이 높지만 현재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골라 장기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흔히 '가치투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보텀업 투자는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개별 종목 분석에 집중하기 때문에 보통 하락장 시기에 각광을 받습니다.



시사용어 CHECK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을 보여주는 문서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이 있다.

특히 손익계산서를 통해 일정 기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알 수 있다.

‘콜록콜록’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암만큼 무서운 병이라니



호흡기 증후군 여파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

게티이미지뱅크



김보람 기자의
보람찬 건강이야기

설렘이 가득한 새 학기. 친구들과 금방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하지만 개학 이후 많은 친구와 다시 모인 만큼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 더욱 무서운 건 ‘폐렴’이란 합병증입니다. 지난달 대만 유명 배우이자 가수 구준엽의 아내 서희원 씨도 독감으로 인한 폐렴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세균 침투 발병…소아청소년 ‘마이코플라스마폐렴’ 많아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 염증이 생긴 병입니다. 원인균 중에는 ‘폐렴구균’이 가장 흔합니다. 폐렴구균은 평소에도 코와 목의 점막에 상주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 기관지 등으로 들어가 폐렴을 유발합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에 걸리면 기관지와 폐점막이 손상돼 균이 쉽게 침투하고 폐렴이 생기기 쉽습니다.

최근엔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폐렴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마이코(미코)플라스마’라는 균이 원인으로,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전염성이 높아 학교 같은 공동체 환경에서 쉽게 퍼진다고 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아청소년병원 52곳의 입원 환자를 조사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폐렴 환자가 1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기 증상 감기와 비슷…고열·호흡곤란 등 폐렴 의심

폐렴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오인하기 쉽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끓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갈수록 심한 고열과 기침,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이 생깁니다. 폐렴구균으로 걸린 폐렴은 진한 적갈색 가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폐렴의 경우 피부질환, 관절염, 뇌염 등을 동반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폐렴은 X선 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진단합니다. 폐렴의 원인균을 찾기 위해 객담 배양검사, 혈청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폐렴 의심 환자에게는 우선 항생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합니다.

심하면 합병증으로 사망…국내 사망 원인 ‘3위’

보통 항생제를 복용하고 충분히 쉬면 1~2주 안에 독감이 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고령자, 당뇨병·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는 사망으로 이어질 만큼 치명적입니다. 패혈증, 호흡곤란, 쇼크 등으로 이어지며 기류, 기흉, 폐농양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폐렴 사망률은 10만명당 57.5명으로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 사망 원인 10위에서 약 20년 만에 3위로 오른 것입니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데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 경우 치료도 어렵고 사망률도 급격히 올라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생수칙 준수·백신 접종 등 예방이 최우선

폐렴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소아청소년에게 흔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백신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비말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므로 △가급적 사람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구강 청결 신경 쓰기 등 위생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의 중증 발전을 예방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의 경우 약 75%, 만성질환자에게는 65~84%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민진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사람이 늘면서 폐렴 치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 등을 통해 폐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매경헬스 기자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역력 낮으면 치명적
국내 사망 원인 3위
꾸준히 위생수칙 지키고
백신 접종으로 예방해야

미국에서 무지개가 사라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색깔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우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키워드 중 하나는 ‘반(反)다양성’이에요. 성소수자, 유색인종 친화적인 기존 방향을 전면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살펴볼게요.



세계는 지금
World News

성은 남녀뿐이라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2월 5일(현지시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을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여성 스포츠에 체력적으로 우수한 성전환자가 참여하는 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취지예요.

트럼프는 “공립 초·중·고교와 거의 모든 미국에서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성전환자의) 공격이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지난달 20일 취임당일에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하는 행정명령에도 공식 서명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여권에 남(M), 여(F) 외에 제3의 성(X)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를 폐기한 거예요.

DEI가 뭐야?

일각에선 버락 오바마 정부부터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대해온 DEI 정책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와요. DEI는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포용성)의 약자예요. 사회·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국을 반성하고, 여성·소수인종·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정권을 잡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최고 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를 두기도 했어요. 조직을 의무적으로 다양한 성별과 인종으로 채울 것을 주문한 거였어요.

기업이 DEI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기도 했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와 같은 대도시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의 지지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DEI가 실제 회사의 수익성 상승에 도움이 되었어요.

거꾸로 가기 시작한 미국

하지만 DEI 정책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기존 주류 집단에 해당하는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심이 쌓인 거예요. 여성과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과 채용 과정에 가산점을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죠.

DEI 정책이 백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 국가로서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에요. 백인 유권자 중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DEI 폐기 정책을 내세운 배경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자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임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밴스 부통령은 소설 ‘힐빌리의 노래’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힐빌리의 노래’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빈민층으로 전락한 백인들의 애환을 다뤄요.

백인 빈민의 문제를 주목한 거의 최초의 책이었기 때문인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55주 동안이나 올랐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능력대로 뽑자는데

트럼프는 DEI 대신 실적 기반 시스템(Merit-based)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대학 입학과 채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을 최우선 고려 요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지층인 백인 보수주의자들이 열렬히 원하던 정책이었죠. 이들은 DEI 정책으로 인해 백인들이 채용과 대학 입학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트럼프는 정부의 DEI 부서도 폐지합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들에게 하던 교육도 중단하도록 지시했죠.

DEI 축소하는 기업들

트럼프의 반(反)다양성 정책 흐름은 민간에도 퍼지는 모양새예요. DEI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예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대표적이에요. 구글은 올해까지 임원진 중 흑인 등 소수인종 비율을 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었는데, 최근 이를 폐기했어요. 아마존과 페이스북 또한 DEI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미국 사회가 더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여요. 오랜 세월 유지돼 오던 다양성의 확대도 다시 도전받게 된 셈이에요. 매일경제 디그

내신 5등급·고교학점제... 확 달라지네

서울대 전형을 통해 본 2028 대입 핵심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 도입, 문·이과 통합 수능능력시험 실시 등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어 올해 고1이 되는 수험생은 고민이 클 수 있어요. 지난 1월 서울대에서는 2028 대입전형 개편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개편 방향을 볼 수 있었고, 상위권 주요 대학은 그 변화와 비슷한 결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표 내용을 통해 2028학년도 대입 변화의 핵심과 그에 따른 대비책을 알아보시죠.

발표된 입학전형 주요 사항(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정시 모집 선발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정 전인 2027학년도까지 서울대는 일반전형 기준 국·수·탐 표준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1단계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20% 반영합니다. 반면 2028학년도 개편(안)에서는 1단계는 등급 합산으로 3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는 백분위 합산 60%와 교과역량평가 40%로 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2028 서울대 정시모집 선발 방식 변화 계획(안) (일반전형)

구분	~ 2027	2028 개편(안)
선발 방법	1단계(2배수): 수능 100 2단계: 수능 80 + 교과 20	1단계(3배수): 수능 100 2단계: 수능 60 + 교과역량 40
수능 반영 방법	표준점수 합산	1단계: 등급 합산 2단계: 백분위 합산

2027학년도까지 적용되는 현재의 표준점수 합산 선발에 비해 등급과 백분위 합산 선발로 변경되면 수능 영향력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2025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은 표준점수 131~139점에 해당하고, 백분위는 96~100점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순으로 점수를 변별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2025학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별 인원을 2028학년도 서울대 선발 기준에 대입해보면 1단계는 2만150명, 2단계는 2740명의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수능 영향력은 이전보다 약해질 것이고, 일반전형은 2028학년도부터 교과역량평가가 20%에서 40%로 커지기 때문에 교과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는 2028학년도 대입을 위한 변화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정시에 교과를 반영했던 고려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한양대가 2026학년도부터 정시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8학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고교 1학년 때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2028 개편안의 또 다른 포인트는 수시에서는 서류평가가 종합역량평가로, 정시에서는 교과역량평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는 학생부를 통해 교과 성취도와 진로·적성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는지, 학업 수행 경

2028 서울대 교과역량평가 평가 항목(안)

과목 이수 충실도	진로·적성 반영 선택과목 이수 내용, 교과별 위계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
학업 성취도	교과(목) 성취도(수강 인원, 과목 특성,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학생 비율, 단위(학점)수 등 고려)
학업 수행 내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학습활동 충실도, 종합사고 역량, 창의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출결, 학폭 조치 사항 등 소통·공감 능력, 협업 능력, 성실성·윤리 실천 등

험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러한 항목들은 평가해왔기 때문에 기존 방향은 비슷하게 유지하되, 대학교에서 각 전공을 들을 때 필요한 역량을 고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배웠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할 것으로 보여요.

2028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성적란에서 표준편차가 삭제되는 대신 성취도별 비율 기재가 진로선택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더라도 전 과목 성적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학생이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커졌는데, 내가 어떤 과목을 들을지 선택하기 전에 나의 진로를 정한 다음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고, 2~3학년에도 이와 관련된 과목을 이어서 수강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관련 학과를 목표로 한 학생이 일반 선택은 생명과학, 진로선택은 생물의 유전, 융합선택은 융합과학 탐구를 듣는다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꾸준히 수강했고 난이도별 순서에 맞게 과목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모집단위별로 권장 과목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 단과대별로 과목 선택 가이드를 만들어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2028학년도 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지만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많은 대학이 전공별 선택과목을 발표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2~3학년 때에도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후 과목을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 동아리 활동 등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부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대학교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작성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적 정보 외에 수행평가 반영 비율, 수행평가 영역명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월별 교내 시험 및 행사 일정, 수행평가 날짜 등을 꼼꼼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교내 행사 날짜를 체크하고 이를 대비하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관리해 대입에서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50회 틴매경 TEST

3월 화이팅!

시험일

2025.05.24(토)

접수 기간

2025.04.07(월)
~ 05.12(월)

할 수 있다!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